

O₅Rchestra

(오케스트라)





O₅Rchestra



ORCHEM

O! Quiz 이벤트!

사보 마지막 페이지 O! Quiz를 풀어보세요!

임직원 7명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응모방법 : 김정아 사원 메일(junga9434@orchem.com)로 응모

※ 본 이벤트는 랜덤추첨으로 진행됩니다.

CONTENTS

- 04 O! Highlight
- 06 O! News
- 12 Inside ORChemer
- 20 O! Relay
- 24 슬기로운 직장생활
- 25 창립기념일
- 28 2024 KPCA Show
- 30 O! Language
- 32 O! Campaign
- 33 O! Health
- 34 O! Test
- 35 O! Quiz

발행처 (주)오알켄
 발행일 2024년 10월 1일 (통권 제 14호)
 편집/디자인 김정아
 기자단 ORCHEM (본사) 최다정, 김학범
 ORCHEM (중국법인) 莫秋玉 Mo qiu yu
 ORCHEM (베트남법인) Tram
 오알시솔루션 박승영, 김준용
 대표전화 031-488-0600
 홈페이지 www.orchem.com

2024년 3분기 ORCHEM 주요 활동 돌아보기



07월 오알켄 33주년 창립 기념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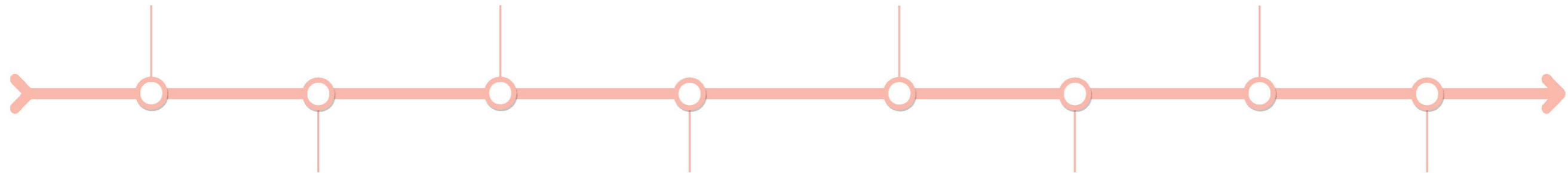
07월 한경협경영자문단 20주년 감사패 수상



08월 사내 달력 사진 공모전



09월 KPCAshow 참가



07월 아주대학교 학생 인턴쉽



08월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08월 임원 워크숍



09월 76th 아슬리코 국제오페라 콩쿠르 아시아 대회 후원



● 오알켄 창립 33주년 기념식



오알켄 창립 33주년 기념식 단체 사진

7월 1일 오알켄이 창립 33주년을 맞았습니다. 25년~5년간 근속하신 임직원들을 위한 포상이 진행되었으며, 오알켄 신제품 소개와 제품 개발을 위해 수고하신 직원분들께도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경영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오알켄의 미래와 비전, 임직원들의 성장에 대한 경영진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출근하고 싶은 회사, 사랑받는 회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오알켄, 한경협경영자문단 감사패 수상



한경협경영자문단 20주년 기념식 및 감사패

오알켄이 7월 17일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문단 20주년 기념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재형 부사장님이 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 아주대학교 학생 인턴십



아주대학교 인턴 학생 단체 사진 및 감사 편지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생 4명이 오알켄 하계 인턴십에 참여하였습니다. 제조 현장 체험을 비롯해 실제 업무 현장을 경험해 보며 멀지 않은 미래의 꿈을 준비했는데, 이런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오알켄 이재현 대표님에게 감사 인사 편지도 남겼습니다! 앞으로 멋진 사회인으로 자라날 아주대학교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 2024 노사문화 우수 기업 선정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및 현판식

오알켄이 7월 12일 2024년도 노사문화 우수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8월 8일 오알켄 본사에서 인증서 수여식 및 현판 제막식을 가졌는데, 이날 수여식 및 현판식에는 오알켄 이충호 대표이사, 김남하 전무, 이혜지 이사, 윤정식 직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이경환 지청장, 박현상 팀장, 강순형 과장 김하은 근로감독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오알켄은 구성원 중심의 복리후생제도 구축, 조직문화 활동 전개 등 내부 구성원 만족을 위한 다양한 활동 성과를 높게 평가받아 해당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제도로 노사 관계 전반의 요소를 심사하여 상생의 노사 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에 수여합니다.

● 2025년도 달력 사진 공모전



2025년 달력 사진 공모전 홍보 포스터

8월~9월에 걸쳐 진행된 오알켄 달력 사진 공모전! 2025년도 달력 제작을 위해 팀별로 계절 컨셉을 정하여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재치 넘치고 기발한 사진들 덕분에 아주 특별한 달력이 제작될 것 같습니다. 곧 진행될 우수 팀 시상도 기대해주세요!

● 깜짝 팔빙수 이벤트



깜짝 팔빙수 이벤트

8월 12일 깜짝 팔빙수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사총무팀이 준비한 이벤트였는데, 여름철 더위로 지친 임직원들의 시원한 활력소가 되었답니다.

● 임원 워크샵(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ORCHEM 4.0)



임원 워크샵 단체 사진

임원 워크샵이 8월 22~23일 롤링힐스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중장기 전략 회의를 통해 오알켄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탁구 대회와 명상 등 힐링 타임도 보냈습니다. 임직원들이 있기에, 오알켄의 미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파이팅!

● KPCAshow2024 참가
조동현 상무이사 산자부 장관상 수상



KPCAshow 단체사진 / 조동현 상무이사 장관상 수상

오알켄이 9월 4~6일 '2024 국제 PCB 및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KPCAshow2024)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산업전에서 핵심 제품과 신제품 소개를 통해 오알켄의 기술력과 가치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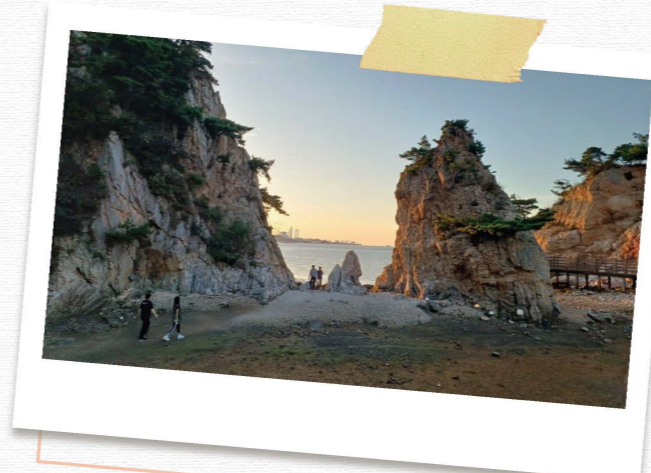
개막식 날인 4일에는 조동현 상무이사님께서 PCB 및 반도체 패키징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PCB 및 반도체 패키징 산업 발전 유공자)을 수상하셨습니다. 조동현 상무이사님은 외국계 다국적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고수율 제품 개발, 차별화된 분석 역량 확보, 구성원의 리더십 및 역량 강화를 통하여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해도금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해당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첫날부터 몰려드는 방문객 덕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냈던 KPCAshow였는데요, 오알켄 홍보 및 전시회 운영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 ORC 솔루션

(ORC솔루션 박승영, 김준용 기자)

ORC Solution
여름 여행



안녕하세요. ORC솔루션 김준용 기자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휴가는 잘 보내셨나요? 올해 여름은 지난해보다 확실히 더 더운 거 같습니다. 찌는 더위 때문에 이번 여름은 항상 에어컨을 켜고 산 거 같아요.

무더위를 뚫고 이번에 다녀온 여행지는 왜목마을 해수욕장입니다. 지난해 한번 다녀왔던 장소이긴 한데, 한 번쯤 가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소개할 겸 다시 다녀왔습니다. 확실히 바닷가라 바닷바람은 시원했지만, 여름인자라 햇볕은 정말 뜨거워서 맘을 엄청나게 흘린 거 같아요. 그리고 8월 휴가철이라 그런지 어딜 가도 사람이 많아 붐볐습니다. 주변에 버스킹 하는 사람들과 해수욕장 바로 앞 캠핑족들을 보니 휴가 느낌이 물씬 나더군요, 참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전 휴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유로운 저 사람들 틈에서 나름 즐겼습니다. 해수욕장에 갯벌 체험과 예약을 해놓아서 숙소에 짐만 간단히 풀고, 호미와 양파망을 챙겨 갯벌로 갔어요. 썰물 때 캐기 시작해서 밀물 때까지 캐는데 한... 대략... 1kg은 캔 것 같습니다! 이후 숙소로 와서 낚잠을 잤는데 세상 꿀잠을 잤던 거 같아요. 야간에 해루질 일정도 있어서 '체력 보충은 필수!' 라고 생각하며 쪽 잔 거 같아요.



저녁엔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장고항노적봉선착장 수산물 유통센터 내 식당에서 갑오징어회를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어 남기고 말았네요... 밤엔 폭죽놀이도 하며 주차장에 있는 푸드트럭에서 간식류를 먹었습니다.

썰물 시간이 되어서 해루질 장비를 챙겨 나왔는데요, 수경 쓰고 열심을 내는 초등학생들과 바지락 캐시는 아주머니 사이에서 꿀팁도 얻어가며 2시간 이상 돌아다녔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잡아서 아쉬웠어요. 그래도 낮보다 밤이 시원해서 그런가 너무 좋았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와 와서 체험도 해보고 좋은 추억도 쌓다 보면, 또 생각나서 다시 방문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렇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와서 또 다른 추억을 쌓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한 해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절강성 ERP
8월 종합 테스트
운영 TFT 지원**

한국 | 김홍덕 부장, 맹경남 과장, 최대성 대리,
임수정 대리, 이경민 주임, 구재근 대리
중국 | 姬素军及分析员2人, 汪峰, 全伟平
叶秀梅, 金铭官, 江金燕, 俞敏倩

계획된 일정에 따르면 절강성 공장은 9월 말 시험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ERP 시스템의 공식 버전(PD)은 8월에 공식적으로 오픈하며, 8월 종합 테스트는 테스트 시스템(PY)에 대한 마지막 종합 테스트로서 중요성을 가집니다.

이 종합 테스트는 약 일주일(8/19~8/23)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내용 중 아직 미숙하거나 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을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운영 및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모두가 소통, 노력하여 마침내 다양한 부서의 연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식 시스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개발사에 피드백했습니다. 또한 시험 생산이 임박함에 따라 절강성 공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ERP 테스트와 동시에 본사에서도 직원을 파견하여 절강성 공장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OPTFT 관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생산 및 품질 부서와 관련되었는데, 작업 데이터 관리, checksheet 관리, 분석 장비 methods 검증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러 차례 교육과 종합 테스트를 통해 절강성 공장의 모든 부서는 ERP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공식 시스템 개시 이후 기본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월 중순과 하순에는 한국 PI의 마지막 ERP 출장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공식 시스템에서 실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 보고 남은 문제점들을 점검 및 보완하여 ERP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법인
ERP 구축 진행**



처음 모인 자리, 각자 소개와 ERP 시스템에 대한 구축 계획 관련 설명을 미리 듣고, 기념사진도 촬영했습니다. 담당자, 컨설턴트, 본사 직원들까지 약 30명 가까이 참석했는데, 이를 통해 본사와 법인이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ERP 교육과 실습 과정

ERP 컨설턴트들과 본사 PI 팀이 방문하여 4주간 업무 및 프로세스 교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각 모듈별 담당자들은 VINA 법인 직원들과 격무에도 빠짐없이 하루에 4시간씩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에는 주간업무 회의를 통해 일주일간의 진행 상황과 차주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컨설턴트분과 PI 분들이 귀국한 이후에도 꾸준히 교육을 이어가며 ERP 테스트 화면을 직접 다뤄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실습해 보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초기에는 ERP가 복잡하고 입력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직접 사용해 본 후에는 이러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PI는 교육받은 내용을 잊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RP 시스템 오픈 시점인 올해 말까지 한국 PI 팀과 협력하여 모든 직원들이 ERP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기대

ERP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일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업무 프로세스가 표준화되고 자동화 되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인에서 실무자들이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 입사자

INTERVIEW



정순철 차장 전사기획팀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철 입니다. 전사기획팀에서 경영기획 및 경영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Q. 페루에서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알켄으로 이직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삼성전자 페루법인에서 11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입사 초 경영혁신, SCM 업무를 하다가 조직 변경으로 경영관리 팀으로 자리를 옮겨 10년 동안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

했습니다. 주 업무는 관리회계 결산, 월 실행계획, 년 사업 계획, 조직평가, Risk management 활동 등으로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들을 관리 감독하며 경영진의 의사 결정을 도와드리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있으면서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한국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페루 국적인 와이프와 한국으로 휴가를 왔을 때 한국의 살기 좋은 환경과 안전함에 와이프도 한국 생활을 해보고 싶어 해 귀국을 결정하였습니다. 귀국 전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는데 오알켄이 가장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면접도, 합격 통보도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이런 오알켄의 추진력, 빠른 의사결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추가로 오알켄의 다양한 복지 정책들도 입사 결정에 한몫한 것 같습니다.

Q. 그간의 경력들이 오알켄에서 도움이 되고 있나요?

삼성에서는 수많은 해외법인 중 한 곳에서 관리를 담당하는 입장이었으나 오알켄에서는 본사 전사기획팀 팀장으로서 해외법인 관리까지 해야 하는 입장이니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할까요? 하지만 경영관리 관점에서는 업무상 큰 차이는 없기에 그동안의 경력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오알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Q. 해외에 오래 계셨던 만큼 한국에 돌아와서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오기 전부터 날씨에 대한 걱정이 제일 컸습니다. 제가 살던 페루 수도 리마는 일년내내 15~30도 정도로 큰 편차 없는 기온에 비도 거의 안 오기 때문에 한국의 사계절 날씨 변동에 어떻게 적응할지가 관건이었는데, 역시나 한국의 혹독한 겨울 추위와 여름 더위는 적응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겨울 추위를 처음 겪어보는

제 와이프는 외출할 때마다 몇 겹씩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내년 겨울에는 좀처럼 겨울잠을 자고 싶다고 하네요^^

Q. 오알켄에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전사기획팀 캔미팅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회사 외부에서 전체 팀원들과 소통할 기회가 없었는데, 캔미팅을 기회로 업무외적으로도 많은 얘기를 했고, 속도 한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반기 캔미팅도 기대가 됩니다

Q. 오알켄 혹은 부서에 적응하면서 가장 고마웠던 분은 누구인가요?

아무래도 저희 팀원인 김선미 차장님이 초기 적응에 제일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업무적으로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퇴근 후에도 종종 술자리를 하면서 한국 생활 팁을 전수 받았습니다.

제조팀 박진희 차장님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조업종 근무가 처음이다 보니 생산현장을 잘 몰라 도움을 요청드렸는데 흔쾌히 지원해 주셔서 업무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지 이사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사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세 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Q. 앞으로 오알켄에서 도전해 보고 싶은 업무나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현재 기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오알켄을 알아 가고 PCB 업계, 약품 업계 Biz 리듬을 파악하는 시기라서 어떤 큰 도전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우선 단기 미래 구간에 대한 손익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알켄은 그동안 연 1회 사업계획 편성 시에만 미래 구간 시뮬레이션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사업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3개월 등 단기 구간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프로세스를 잡아보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법인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오알켄이 글로벌 기업으로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외법인이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해외법인의 비효율, 불합리 요인 등을 파악하고 개선해서 건실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오알켄이 한국매출 1위 글로벌 연결 매출 2천억을 넘어 그 이상으로 성장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일조 하고 싶습니다.





구현철 대리 전산정보팀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정보팀 구현철 대리입니다.

Q. 오알켄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경기도로 이사 이후 매일 서울 출퇴근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존 직무와 맞고 위치도 인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하게 찾아 보았는데,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사랑받는 회사, 출근하고 싶은 회사’라는 슬로건에 호기심도 생기고, 채용 홍보 유튜브에 소개된 복지제도에 반해 입사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입사 후 지금까지 재미있는 회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Q. 경력적으로 입사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지금까지 전산팀 개발파트에서 근무하며 주로 ERP 개발/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직전 직장은 요즘 자주 들을 수 있는 새벽 배송과 같은 서비스를 하는 유통/물류업의 회사였는데, 그에 연관된 개발 프로젝트들을 진행했던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Q. 근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아보자면?

입사 직후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제품 출하 프로세스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설명을 듣고 개선 프로세스를 설계 하며 정부지원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입사 직후 업무 파악과 적응 기간이 부족해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또 준비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을 때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부서 적응 중 고마웠던 에피소드나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전산정보팀 팀장님, 팀원님들 모두 바쁘신 가운데에도 파트별로 교육 및 도움을 주셔서 지금까지 적응할 수 있었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잦은 해외 출장에도 시간을 쪼개어 멘토 활동을 해 주신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이 자리에서 신규 입사자 인터뷰를 작성할 수 있게 해 주신 김남하 전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오알켄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정부지원사업(제조 입출고 관리 시스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성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법인 ERP 구축 프로젝트에서도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시스템 구성을 학습하여 전 직원의 ERP 사용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주적인 개발/운영을 할 수 있는 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권은경 주임 영업 관리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업관리팀 권은경 주임입니다. 저는 현재 영업 관리팀에서 수출통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오알켄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오알켄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로 원하는 직무의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Q. 경력적으로 입사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전 직장은 디스플레이/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에서 수출 통관 업무, 추심 업무 등 자금 포함한 무역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오알켄에 입사 후 수출을 진행하면서 위험물 수출에 대해 배우게 되었으며 이전 수출 업무를 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쉽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Q. 근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아보자면?

입사하고 처음으로 수출 상차 진행한 날이 생각나요. 되게 추웠던 날이었는데, 문제없이 수출 상차를 끝내서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Q. 부서 적응 중 고마웠던 에피소드나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 영업관리팀원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업무와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주시고, 업무가 막힐 때 같이 고민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어요. 영업관리팀 분들께 항상 감사합니다.

Q. 마지막으로 오알켄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앞으로 화학약품 수출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임창현 사원 기술혁신팀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혁신팀 임창현 사원입니다. 32살 이구요, 신입이라 하기에는 나이가 좀 있는데, 오알켄이 첫 직장은 아니고 PCB 장비 회사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PCB 업계에 있다 보니 업계 가장 핵심인 약품 산업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알켄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오알켄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오알켄 입사 전에 모 기업의 화학동 장비 셋업을 담당했는데요, 당시 가장 가까워서 오랜 시간 협력했던 분들이 오알켄 직원분이었어요. 그중에 노윤석 차장님과 연이 닿아서 오알켄으로 이직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면접 기회를 얻어 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PCB에 대한 아무 지식도 없는 상태라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많이 알려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이런 분들 밑에서 일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오알켄이 좋은 기업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면접비나 신규 입사자 앨범과 같은 것들을 처음 받아봤는데, 잘 갖춰진 회사라는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제가 커피를 하루에 5~6잔 마시는 커피 중독자인데, 사내 카페 포인트를 제공해 주시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Q. 근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아보자면?

최근 베트남 출장에 다녀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현지 직원분들께서 업무적 역량이 뛰어나셔서 배울 점이 많았어요. 제가 성장과 배움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베트남 출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Q. 중국어가 능숙하시는데, 중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가 있나요?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약 10년간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에 취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 원래 야구 선수를 준비하다가 어깨가 안 좋아져서 고민하던 중에 부모님의 권유로 중국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어는 생활하면서 1~2년 정도 만에 빨리 익힌 것 같아요. 나중에는 한국어가 어색해서 한국어 공부를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Q. 부서 적응 중 고마웠던 에피소드나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다들 너무 감사하지만, 입사 전부터 많은 도움 주신 노윤석 차장님과 김정호 차장님께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직급 차이가 있어서 챙겨 주시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해외 출장부터 업무적인 부분, 생활적인 측면까지 디테일하게 챙겨주시고 알려주셔서 적응을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오알켄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앞으로 오알켄에서 언어와 기술이 전부 갖춰진 기술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저는 저의 장점이 중국어를 모국어 만큼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기술적인 면까지 더해진다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배우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20대까지는 배우고 싶은 건 다 배워보자는 생각인데, 30대에는 배운 것을 토대로 정착해서 저의 업무 역량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싶어요. 제가 화학 쪽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여러 업계를 겪어보니 배우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어려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가까운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제가 중국어 역량이 좋게 평가돼서 입사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중국 출장을 못 가봤어요. 중국 손님들이 본사에 방문하셨을 때 회사 소개를 제가 진행했는데, 보람차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중국 출장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안소희 사원 재무회계팀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무회계팀에서 자금을 맡고 있는 안소희입니다.

Q. 오알켄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편안한 환경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회사에 입사하고 싶었습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오알켄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직원들을 생각해 주는 복지와 시설들에 반해서 공고를 찾아보았고, 때마침 제가 원하는 직무의 공고가 올라와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직원들을 위한 복지가 많은 점이 오알켄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근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아보자면?

처음이라 모르는 것이 많은데,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려는 모습들이 감사하고 기억에 남습니다.

Q. 춘식이를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춘식이 아이템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제일 좋아하는 색이 노란색인데 일단 춘식이가 노란색이라는 점과 단순하게 생긴 얼굴이 너무 귀여워서 좋아해요! 제 자리에 와보시면 춘식이 키패드와 모니터 인형이 있는데 정말 귀엽습니다!! 일의 능률이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해요 ~

Q. 부서 적응 중 고마웠던 에피소드나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을 포함해서 저희 팀원분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주십니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참 많이 했고, 아직도 그러는 중인데, 귀찮아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오히려 자기 일처럼 도와주시는 모습이 제가 빨리 적응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오알켄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선 1인분은 거뜬히 해낼 수 있도록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하루빨리 마스터하고 싶어요. 그 후에 팀원분들이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이 저를 떠올리셨을 때 좋은 인상으로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구매자재팀
심규환 사원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매자재팀에서 MRO를 담당하고 있는 심규환 사원입니다. 원/부자재를 제외한 구매 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타 부서의 구매 요청을 받아 대신 구매 및 계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Q. 오알켄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같은 대학교에서 만났던 전용빈 사원을 통해 오알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알켄이 국내 시장에서의 권위뿐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시장 문을 두드리는데 도전 정신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는 MRO로 시작하지만 향후 회사가 더 성장하면 해외 구매까지 경험해 보며 제가 원하는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Q. 배드민턴을 굉장히 잘 치시던데, 배드민턴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평소 운동에 관심이 많아 수능 끝나고 새로운 취미를 찾다 배드민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쪽 이어오다 보니 잘 치게 된 것 같아요. 입사 전에는 지인의 추천으로 생활체육증 자격을 취득해 3년간 초등학교 및 성인반 레슨을 진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Q. 근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아보자면?

저의 첫 입사일이 중국 법인 분들이 본사에 방문하시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품질팀에서 통역을 필요로 하셔서 통역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화학 용어나 회사 프로세스를 잘 모르지만, 품질팀 조선영 부장님의 따뜻한 격려 덕에 편안한 마음으로 통역 업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부장님으로 인해 사원들 한명 한명 잘 살피는 오알켄의 따뜻한 면모를 느낄 수 있어 감동을 받았습니다.

Q. 부서 적응 중 고마웠던 에피소드나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인사팀 홍흥기 부장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은데요, 처음 구매 업무를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을 스스로 품고 있었을 때 홍부장님께서 '지금 잘 하고 있다'라며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의 여러 걱정이 자신감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오알켄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현재는 MRO 업무를 맡고 있지만 향후에는 내자, 외자 업무까지 맡아 구매팀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팀원이 되고 싶습니다.

ORCHEM
특남♥특녀소식

오알켄에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열 달간의 기다림 끝에 새 가족을 맞이한 직원분들이 계신데요, 이 감격과 감동의 순간을 임직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아이와 함께 꾸려 나갈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세요!!



24.07.22 특남
김주석 차장

셋째가 태어나면서 제 인생에 또 하나의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감사하고 앞으로 이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 이루겠습니다. 가장으로서 어깨가 더 무거워졌는데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잘 키우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4.07.19 특녀
김성진 과장
건강하게 독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7.19 특녀
구자원 주임
아직 어른이 되기엔 먼 것 같지만 아버라는 새로운 책임감으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interview

마니또



마니또
이충호 대표님

짜깁
김건범 상무님

Q. 임원분들과 마니또 게임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궁금해요!

이충호 대표님

처음 마니또 게임을 진행한다고 들었을 때, 그동안 이런 문화를 접해보지 않아서 호기심도 생기고, 서먹서먹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진행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MZ 세대들의 감성과 잘 맞는 것 같고, 직원 간의 화합과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 좋은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참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건범 상무님

마니또 게임이 원래 학창 시절에 설레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하는 게임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레트로가 유행하다 보니 이 같은 이벤트가 기획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또 이벤트를 진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Q. 건범 상무님께 편지와 간식을 깜짝 선물하셨는데,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또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충호 대표님

솔직히 선물은 직접 산 건 아니고 받은 선물인데, 좋은 행사가 있으니, 여기에 써야겠다고 생각해서 전달했습니다. 김건범 상무와 오래 근무를 같이했었는데, 이런 행사나 뽑기 때 항상 인연이 되는 것 같네요. 예전 임원 행사 때도 김건범 상무와 함께했었는데, 이번에도 마니또 게임을 함께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김건범 상무가 제품 개발이라던가, 고객사, 세미나 등 일도 많고 힘들 텐데, 편지 통해서 김건범 상무가 연구소 발전을 위해 책임지고 또 해결하고 있는 부분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응원하고 있으니 부담감 느끼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었어요.

Q. 마니또 게임을 핑계로 쟁겨주고 싶었던 선물이나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나요?

이충호 대표님

들이 저녁에 밖에서 만나서 소주 한잔하고 싶었는데, 해야 할 업무도 많고 바쁘다 보니 그럴 시간을 못 만든 것 같아요. 미미하지만 다음 기회에 같이 저녁에 술 한잔하면 좋겠습니다.

Q. 마니또의 깜짝선물을 받으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김건범 상무님

수기로 쓴 편지가 노란 편지봉투에 담겨있었어요. 그냥 타이핑으로 쓰거나 봉투 없이 딱지처럼 접힌 편지여도 감동받았을 텐데, 성의 있게 써 주셔서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했을 때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는데, 편지 받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Q. 잘 쟁겨주신 대표님께 평소 전하고 싶었던 감사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건범 상무님

대표님을 사원때부터 계속 봤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 적응을 잘 못했는데, 대표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해주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적응하고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어요. 덕분에 잘 적응해서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오알켄에 입사한 지 벌써 18년이 되었네요. 대표님을 자주 뵈고 또 소주도 사달라고 해야 했는데, 일 핑계로 그러지 못했어요. 기회가 된다면 그런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Q. 다음에 또 이러한 이벤트가 진행된다면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이충호 대표님

젊은 사원들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영화나 뮤지컬 같은 문화 행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또 마니또와 같은 이벤트는 직급을 나누지 않고 진행해서 경영진과 직원들이 거리낌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건범 상무님

마니또를 일대일 미션이 아닌 일 대 다(2~3명 정도) 미션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정체가 공개 되었을 때, 마니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구성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본부별로 이벤트가 진행되었는데, 제가 연구소에 있어도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 개개인들과의 접점이 많지 않아요. 먼저 소단위로 전파해 가면서 다른 본부와의 거리감을 좁혀나가도 좋을 거 같습니다.

interview

마니또

내년
정일룡 직장님

백영
원종호 주임님



Q. 마니또 게임을 본부별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궁금해요!

정일룡 직장님

마니또가 어떤 게임인지 잘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언젠가 아들 방에 들어갔었는데 아들도 반 친구들과 많이 하더라고요. '나도 했었는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좋았습니다. 또 랜덤 뽑기에서 원종호 주임을 뽑았는데,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종호는 착실하고 업무 역량도 우수하다는 걸 지켜봐 왔기 때문에 더 잘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원종호 주임님

마니또 게임을 초등학교 때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고학년과 저학년이 함께 게임을 진행했는데, 그러다 보니 아예 모르는 사람 매칭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오알퀘에선 본부끼리 했었는데, 다음번엔 아예 교류하기 어려운 팀과 소통해 볼 수 있도록 섞어서 해봐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마니또 게임을 핑계로 챙겨주고 싶었던 선물이나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을까요?

정일룡 직장님

종호가 이번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잖아요. 여유롭게 비용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냉장고 같은 거 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걸 못 해줘서 아쉬웠습니다. 또 해주고 싶었던 말은 신혼이고, 가정을 예쁘게 꾸리고 있으니, 애도 낳고 행복한 가정될 수 있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Q. 마니또에게 받은 선물이나 미션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원종호 주임님

메시지 적어주신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원래도 현장 분들이 많이 챙겨주시긴 하는데, 글이나 편지는 잘 안 써요. 아무래도 남자들끼리다 보니, 그런데 이번 기회에 좋은 글을 써주셔서 기억에 남습니다.

Q. 제일 진심을 담아서 수행한 미션은 무엇인가요?

정일룡 직장님

감사 편지를 가장 진심을 담아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군대 때 쓰고 몇 년 만에 쓴 거라 오그라들더라고요. 그래도 미션이라 썼는데, 들어서서 생각해 보니 제일 진심을 담아 했던 것 같아요. 편지에는 종호가 회사의 본보기가 되고, 또 결혼 생활과 회사 생활에서 좋은 인재가 되길 응원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Q. 마니또 게임하면서 마니또의 정체를 예상하셨나요?

원종호 주임님

예상했죠. 평소에도 잘해주시긴 하는데, 유독 너무 잘해주셔서 눈치를 쳤습니다.

Q. 잘 챙겨주신 정일룡 직장님께 감사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원종호 주임님

직장님도 그렇고, 현장 분들과도 그렇고 근무하면서 많이 가까워졌어요.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또 잘 챙겨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 10가지

즐거로운 직장생활

사이버 보안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 10가지

- 1. 안전한 인터넷 연결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공용 wi-fi 사용은 권장하지 않으나, 공공장소 등 밖에서 이용할 경우 민감한 데이터 정보 전송, 온라인 banking 등 자제
- 2. 강력한 암호 선택**
기억하기 쉬운 암호로 설정하지 말 것, 대, 소문자, 숫자, 특수기호를 모두 포함하여 12자리 이상 설정
- 3. 소프트웨어와 운영 체제를 최신 상태로 유지**
개발자들이 최신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보안 패치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시 업데이트 권장
- 4.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처럼 보이거나 느껴지는지 확인**
사이트 주소가 철자법 혹은 문법 오류가 없는 텍스트, 선명하고 화면 너비에 정확하게 맞는 이미지 사용 확인
- 5. 의심스러운 링크와 클릭하는 링크에 주의**
신뢰할 수 없는 이메일 및 링크 클릭 금지
- 6. 주기적으로 데이터 백업**
랜섬웨어 공격 영향 감소 효과
- 7. 다운로드하는 콘텐츠에 주의**
앱, 악성 웹사이트 클릭 주의, 무언가를 다운로드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뢰하는 출처나 공식 출처에서 콘텐츠 다운로드
- 8. 무엇을 어디에 게시하는지 주의**
온라인 게시글 혹은 개인정보 입력 칸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 후 입력
- 9. 온라인 정보 재확인**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 주의
- 10. 좋은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
양질의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제공 업체 이용

33th 우리가 함께 쓰는 이야기

장기 근속자 포상

오알켄 장기 근속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오랜 기간 회사를 위해 헌신한 임직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5년 근속상 구미 제조팀 방대혁 직장

20년 근속상 영업 본부 양승환 상무이사

15년 근속상 베트남 법인 안희철 상무이사
품질팀 조선영 부장
MTV 제조팀 이수로 직장

10년 근속상 COO 이혜지 이사
재무회계팀 윤은비 과장
국내영업팀 정원일 부장
인사총무팀 강형욱 과장
분석기술팀 김부연 과장
영업관리 이정은 과장

5년 근속상 MTV 제조팀 박재신 선임
베트남 법인 민정식 부장
베트남 법인 김태열 차장
선형개발팀 구자원 주임
분석기술팀 김기훈 주임
선형개발팀 김대균 주임
구미 제조팀 이희동 선임
인사총무팀 김지연 주임

창립 기념일
장기 근속자 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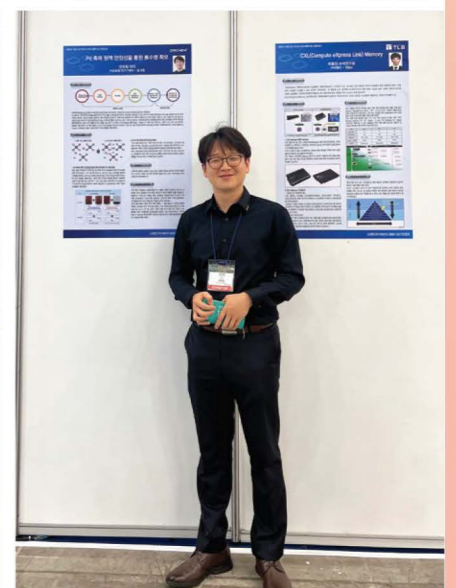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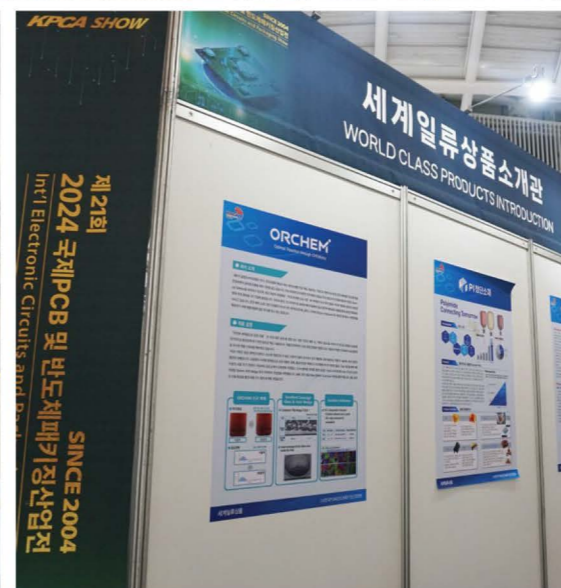
ORCHEM 33주년



창립기념일
현장 스케치

2024 KPCA show

오알켄이 9월 4~6일 '2024 국제 PCB 및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KPCAshow2024)에 참가하였습니다. 핵심 제품과 신제품 소개를 통해 오알켄의 기술력과 가치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막식날인 4일에는 조동현 상무님께서 PCB 및 반도체 패키징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장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알켄 홍보 및 전시회 운영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KPCA
현장 스케치

O! Language

가을만 되면 체육대회 준비로 분주했던 학창시절, 기억하시나요?
화창한 가을, 운동회 시즌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운동회

运动会 yùndònghuì
hội thi đấu thể dục thể thao

참가하다

参加 cānjiā
tham gia

항목, 종목

项目 xiàngmù
nội dung

축구

足球 zúqiú
bóng đá

경기

比赛 bǐsài
trận thi đấu

이기다

赢 yíng
thắng

지다

败 bài
Thua

언제 운동회를 하나요?

什么时候开运动会?
Khi nào thì tổ chức đại hội thể thao?

내일 학교에서 운동회를 합니다.

明天我们学校开运动会
Ngày mai có đại hội thể thao ở trường.

어떤 종목에 참가하나요?

你参加什么项目吗?
Anh tham gia môn thể thao nào?

축구 경기에 참가합니다.

参加足球比赛。
Tôi tham gia trận đấu bóng đá.

경기 보러 갈 테니까 힘내!

我会去看比赛的, 加油!
Mình sẽ đi xem trận đấu. Cố lên!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比赛开始了。
Trận đấu đã bắt đầu.

어느 팀이 이길 것 같나요?

你看哪个队能赢?
Các bạn nghĩ team nào sẽ thắng?

점수가 어떻게 됐나요?

现在分数怎么样了?
Bây giờ điểm số thế nào rồi?

우리 팀이 이겼습니다.

我们队赢了。
Đội chúng ta thắng rồi.

우리 팀이 졌습니다.

我们队输了。
Đội mình thua rồi.



소방의 날

11월 9일은 119를 상징하는 소방의 날로 올해 62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도 재난에 대비하고, 사고 시 대응하느라 고생하시는 소방관들을 위해 소방의 날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방의 날은 무엇일까요?

소방기본법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에 의거,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소방의 날 유래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1948년부터 정부에서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운영되었습니다. 불조심 강조 기간의 시작인 매년 11월 1일에는 지역별로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되었으며,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소방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1991년 소방법 제정 이후엔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법정 일로 제정하였으며, 1999년 11월 9일부터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중앙 단위의 행사로 진행하여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119라는 숫자를 긴급 신고 전화로 결정하였을까요?

1925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방서가 생기게 됩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한국의 소방 제도는 일본의 소방 제도로부터 도입 되었습니다. 일본은 1926년 관동대지진을 계기로 화재 전용 전화번호를 112번으로 설정하였으나, 접속의 착오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1927년부터 지역 번호로 쓰이지 않는 9번을 사용하여 119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사용된 긴급구조 번호인 119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Sports Club ORCHEM 운동 동호회

운동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회장 | 김예슬 사원

운동 동호회는 여러 가지 스포츠들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체험하는 동호회입니다. 항상 모임 전에 어떤 활동을 원하는지 투표하여 공정하게 선택하기 때문에 매번 출석률이 높은 편이에요. 운동 동호회는 꼭 맨몸이나 구기 종목이 아닌 다른 운동도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색다른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싶다면?!? 운동 동호회로!!!

저희는 이번에 '레이저 서바이벌'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이번 활동만 해도 일상적인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더욱 운동 동호회가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레이저 서바이벌을 해보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이런 운동은 평소에 혼자 하기도 어렵고, 생소하기도 해서 시도를 못 했지만, 이번에 동호회 회원분들과 함께 하니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의 스포츠는?!? 바로바로 레이저 서바이벌!

레이저 서바이벌은 업페물로 자신을 은폐, 업페하며 레이저 총으로 상대방의 조끼를 맞춰 아웃 시키는 서바이벌입니다. 간혹 승부욕이 높으면 싸울 수도 있지만, 저희는 모두 처음이라 그런지 모두 경쟁심 없이 즐기다 왔습니다. 걸보기엔 너무 쉬워 보여서 운동이 될까 했지만 10분 정도 지나니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모두 함께하고, 개인전/팀전으로 진행하며 몰입하다 보니 힘든 것도 잊고 끝까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역동적인 활동을 해서 너무 힘들었지만, 동료분들과 함께 뛰고 소통하면서 사내에서보다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활동이 기대됩니다!



이모티콘QUIZ

다음 이모티콘을 보고 연상되는 '음식'을 맞춰보세요!!

정답 작성 후 김정아 사원(junga9434@orchem.com)에게 이메일 제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문제1)

*힌트 : 세글자, 한국 전통 음식



문제2)

*힌트 : 네글자, 달달한 고기 반찬



문제3)

*힌트 : 네글자, 면 요리



문제4)

*힌트 : 세글자, 튀긴 음식



문제5)

*힌트 : 다섯글자, 계란



문제6)

*힌트 : 두글자, 돼지고기



안전불감증 자가진단 TEST

☐ CHECK LIST

- 차량 이용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욕실,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항상 둔다
- 길을 건널 때에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한다.
- 신호등의 초록 불이 켜져도 좌우를 살핀 뒤 건넌다.
- 모든 약은 보호자나 전문의에게 상담 후 복용한다.
- 물기가 묻은 손으로 전기제품을 만지지 않는다.
- 사용할 제품 구입 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 베란다나 창문에 기대지 않는다.
-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를 만지지 않는다.

■ 테스트 결과

3개 이하	위험!!! 안전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가져보아요!
4~6개	방심 금물!!! 경계심을 늦추지 마세요!
7개 이상	훌륭해요! 지금처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보아요!

O! Test
안전불감증
자가진단
테스트

O! Quiz
이모지 퀴즈



O₂Rchestra

2024 | Vol.14

www.orchem.com

ORCHEM